보살의 길

2010년 겨울호/2011년 봄호 제 44호 (통합호)

2010.11.15 김황식국무총리 방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원장 경하 현성

경인(庚寅)년을 보내며

우주(宇宙)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경인년도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감회와 연민이 교차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연민을 세월에 실려 떠나보내는 마음은 못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흘러가는 과거를 붙잡고 연연(戀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허심(虛心)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갈하게 닦인 그릇을 준비하여 오는 새해를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지는 해의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사건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놓은 업(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은 것은 다시 담아내고 그른 것은 과감히 버리고, 옳은 것은 새해의 시간에 담아 세상에 펼쳐서 지혜(智慧)로운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말은 불교에서는 미혹(迷惑)을 버리고 보리(菩提)를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과거(過去)의 미혹(迷惑)에 빠져 허덕이면 새해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해 신묘(辛卯)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12간지(干支)로 보면 다가오는 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즉 토끼띠라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묘생을 토끼의 속성으로 상징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묘(卯)는 만물이 생생화육(生生化育)하는 번성 또는 무성, 풍요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열두 띠 중에서 가장 생기발동(生起發動)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토끼해는 행운의 해의 하나로 평안하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번성하고 국민은 풍요를 누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혜명양로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 연

김보경 물리치료사

4월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집 근처에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이곳 양로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만 줄곧 일해 오던 나는 여느 병원과는 다른 분위기에 여기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물리치료 일을 한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일이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일이… 하고 또 해도 정해진 답이 없는 일이라 고민하고 노력해도 늘 숙제로 남는 것 같습 니다.

아직은 생각이 부족하고 아직은 깨달음이 부족하고 아직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고 안아주는 그릇이 부족하기에 실수도 하고 혼도 나지만… 또 그렇게 하나를 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곳에 와서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보니 난 그냥 치료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구나...라고 말입니다.

먼저 반겨주시고 먼저 웃어주시는 할아버지들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선생님들 그렇게 모두가 가족이더라구요.

그렇게 지내시는 모든 분들을 보니 나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마음 쓸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늘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단 다짐도 해봅니다.

단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닌 기쁨과 슬픔도 나눌 수 있고 조금이나마 의지가 되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분들의 노후에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따뜻하고 꽃이 만발한 지금이 봄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 관 사무국장

염치(廉恥)와 예의(禮義)

염치와 예의는 비례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이 도무지 어긋나 어느 것이 염치고 예의인지 알 수가 없이 됐다.

요즘 사람들은 염치와 예의를 무슨 액세서리인양 걸으로 주렁주렁 달고만 다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통 알려고 하질 않는다. 어떡케 보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모른 척 하고 지낸다고 할 수 있다.

옛 날 이조시대의임금은 무치(無恥)라고 했다. 그러니까 임금은 속된 말로 무슨 짓을 해도 염치를 따지지 말라고 했다.

왕비(王妃) 말고도 비빈(妃嬪)을 열을 두어도 신하(臣下)나 백성이 따질 일이 아니었다. 요즘으로 치면 첩을 열을 두고 살아도 흉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든 살 임금이 열다섯 살 된 비빈을 취해도 염치를 따질 일이 없고, 신하의 마누라를 슬그머니 취해도 염치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

참 으로 자기 합리화도 이쯤 되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이런 예(例)는 그 시대의 일이지 지금으로서는 염치도 예의도 이만 저만 없는 것이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현대는 어떤가? 현대라고 소가 웃을 일이 없을까? 왜 없겠는가, 위로는 정치인들의 교언영색(巧言令色), 장관이란 사람이 자리보전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행위, 재벌들의 비자금 숨겨놓기, 교수라는 사람이 여학생에게 성추행하고도 아니했다고 맞고소하는 행위, 성직자(聖職者)가 신도들에게 허언(虛言)과 교언으로 영혼을 파는 행위, 교양(敎養)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며 교만(驕慢)으로 머리를 치켜세우고 다니는 사람, 명예(名譽)만 좇아 비리(非理)를 숨기고 허세만 부리는 사람, 등 이것뿐이겠는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염치없고 예의도 모르는 허접스러운 사람으로 본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세종실록(世宗實錄) 29년 5월 22일자에 보이는 사헌부(司憲府)의 상소문(上疏文) 한 구절을 옮겨 염치와 예의에 대해 알고자 한다.

〈예의염치(禮義廉恥)는 나라의 네 벼리입니다.(벼리는 네모난 그물의 모서리 줄을 말함) 이 벼리가 펼쳐지면 인심이 깨끗하고 정치가 맑아서 나라를 밝고 창성하게 이끌어 올리고, 벼리가 늘어지면 인심이 더러워지고 정치가 타락해 나라를 어둠속으로 떨어뜨립니다. 예의는 사람을 다스리는 큰 법이 되고, 염치는 사람을 바로잡는 큰 절개로서 국가정치의 요체가 됩니다. 예의를 준수하고 염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안녕과 영화를 보전해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할 것이며, 예의를 포기하고 염치를 저버리는 자는 마침내 재앙과 패망에 빠져 더러운 냄새가 만대에 흐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염치와 예의의 이치(理致)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염치와 예의를 안다고만 했지, 실천하는 데는 인색했다. 그 염치와 예의는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덕목이다.

이제부터라도 남을 배려하고 이웃과 교례 하여 이웃의 아픔을 쓸어주고, 서로 웃는 낯으로 교감하고, 사회의 질서의식을 세우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남의 말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져 어울림의 예(禮)를 알아 위로는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친구의 의(義)로움을 저버리지 말며, 가정의 화목함과,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염치와 예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체조로 건강관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혜명양로원 건강 체조 강사 오정은입니다.

저는 금천구생활체육회에서 어르신 지도자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로당, 요양원 또는 노인복지관,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댄스스포츠, 태권무, 노인건강체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혜명양로원으로 수업을 배정받아 첫 수업을 준비하며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어르신들의 성함도 다 외울 정도로 익숙한 수업이 되었고, 일주일에 두 변의 시간을 보내며 어르신들과의 친분도 두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더 기쁘고,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들어서는 저에게 항상 밝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따뜻함입니다. 체조수업 중에도 어느 한분도 빼놓으시지 않고 열심히 잘 따라 해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열성을 다하여 열심히 가르치게 되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는 것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곧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 즉 매일매일 조금씩 걸으시고, 음악에 맞춰 가벼운 체조나 율동을 하면서 신체 혈액순환을 도와 좀 더 활기차게, 활동적이게, 즐겁운 삶을 보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늘 환하게 웃어주시고, 예뻐해주시는 어르신들을 오래오래 뵙고 싶고 최선을 다하여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저는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책임을 다해 깊은 사명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르신들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오래오래 즐겁게,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회복지 실습

김 신 영
(국제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실습을 하였던 김신영입니다. 국제디지털대학교(수원소재) e-평생교육학 전공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 마음이 있어서 사회복지학과의 학문을 전공 이외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혜명 양로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어르신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목욕장, 베란다 청소 업무는 실습 시 저의 오전 - 시간의 기본 일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활시설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며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청결 업무가 저에게 주어져서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미끄럽지 않게 유지되도록 실행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어르신들과의 산책 시간은 1층 휴게실과 산책로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산책 시 어르신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였지만, 다음 산책 시에는 질문을 통해 요보호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활동을 생활지도원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을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보호자의 목욕을 시행할 때에는 처음에는 성을 내던 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7주 동안 매주 뵈며 목욕과 손?발톱 소지를 도와드려서인지, 실습 중반 이후로는 그 누구보다 좋게 마음 가져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발톱 소지를 할 때에 주름진 손?발이 부끄럽다고 하였으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주름진 손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습 기간 중에 위급한 어르신이 발생되어 병원에 구급차로 이동을 한 경험은 감정의 부담을 느낀 상황이었지만, 사회복지 실습 중 가장 큰 경험이었으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지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할 때에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 등 사회복지기관의 구분에 대해 명확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사님의 오리엔테이션 후 기관의 구분과 혜명양로원의 입소절차와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의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습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함께 경험하니, 행복의 정도는 사회복지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건 간에 스스로의 마음가짐에서 결정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주말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기회는 많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르신들이 나누어주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하며 다른 형태의 기관마다 가지는 특성을 인식 할 수 있었으며, 이번 두 달여간의 실습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업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8

혜명 한마당

2010년 10월

10월 8일 제7회 노인의날 기념 운동회

10월 11일 구충수 후원자 닭꼬치 대접

10월 13일 문백초등학교 공연

2010년 11월

11월 2일 전등사 해수탕 온천

11월 20일 알쏭달쏭 공연

11월 27일 생신잔치 공연

2010년 12월

12월 1일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회

12월 9일 구로케이블 김장후원

12월 31일 서대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중공양 및 후원

2011년 1월

1월 21일 차밍체조

1월 25일 '글러브' 영화 관람

1월 29일 기업은행 자원봉사 및 후원

2011년 2월

2월 6일 대림성모병원 복사기 후원

2월 18일 제8회 척사대회

2월 28일 어르신 외식

2011년 3월

3월 15일 가산도서관 책 읽어드리기

3월 16일 생신 어르신 외식

3월 21일 사랑나눔 음악회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 설 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 원 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 재 근 (현성큰스님)
- 정 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총 17명
원장1명/ 사무국장 1명/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물리치료사 1명
위생원 1명/ 서무 1명 /조리원 3명

입소구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수급자증명서
4.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증명사진 4장 6.우리은행 통장
7.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총 61명 (3월 31일 기준)
할아버지 : 27명 할머니 : 34명

2010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7월~12월)

수 입		지 출	
후원금종류	금 액	지출내역	금 액
지 정 후 원 금	14,955,700	사무비	5,485,924
		자산취득비	10,014,686
		사 업 비	9,311,495
비 지 정 후 원 금	16,531,351	프로그램 사 업 비	2,304,520
합 계	31,487,051	합 계	27,116,625

자원봉사자

2010년 10월 1일 ~ 2011년 3월 31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 유미애, 유른경, 한미정, 양영진, 김경은(밑그림색칠),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조기환(물리치료), 임성은(건강체조),백련사울림회,묵향법사, 지영옥, 최미자, 이순교, 김덕순,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임길자, 황복순, 이금분, 민귀남(찬불가봉사팀),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준자(반야회3기), 오정자, 유범열(아코디언), 대한적십자사, 하정자, 송길숙, 오유리, 박미자, 엄숙희, 심은숙, 권태숙, 김진화, 이은경, 박애하, 마경숙, 이은경(반야회4기), 이유숙, 이미화, 송영순, 주양희, 신종일, 박현주, 박향자, 신경이, 황현숙, 박지혜, 정진숙, 안형준, 김종윤, 박상준, 최태영, 김재형, 이준호(반야회5기), 박미란(말벗), 김동섭,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안성수(우담바라), 이정순, 고병님, 권영순, 김미정, 박미옥, 전선순, 소미숙, 한종님(민들레모임), 양병순, 남숙호, 장재창, 현군자(수지침), 이강택, 양승학, 임효정, 황영이, 이정애, 한미옥(알송달송구연동화), 백은자, 장은정, 이은경, 변상숙, 이영미, 임은영, 민현숙, 정용경, 이효숙, 김계숙, 한성아, 홍성정, 김민순, 김용자, 정수정, 이은순(반야회6기)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푸드뱅크, 영재혁, 변상진, 백련사, 독지가, 홍인기, 혜명보육원, 반야회6기, 로타리부인회, 보덕암, 입소자지인, 서병모, 서서울생활과학고, 법화선원, 홍삼수, 국승우, 홍사랑, 구로케이블, 은행나무떡집, 인천보살, 문성초고, 삼진섬유, 강영태, 서울시사회복지과, 청소년캠프어울림, 금천구 상공회 여성분과, 마포신문사, 찬불가,삼문회교통봉사대, 민문기,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박우영, 코오롱아이넷, 구충수, 기업은행, 금천구의회, 원각스님, 보명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재근원장님, 대림성모병원

후원금품

윤숙현 300,000 윤재순 150,000 박성수 150,000 최형기 50,000 권기상 250,000 문금자 50,000
구봉순 40,000 이정호 25,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26,000 이애자 20,000 한태규 200,000
한진택 500,000 서현종스님 70,000 백승풍 20,000 영등포교도소 100,000
강윤호 100,000 이복자 40,000 박혜정 50,000 양보금 50,000 삼육지관공업 100,000
안효주 1,000,000 백련사 500,000 기업은행 2,000,000 마희전 80,000 유원조 10,000 박세진 60,000
이순자 100,000 국무총리실 2,000,000 망월원 1,000,000 구수미 400,000 박두영4 00,000
구충수 110,000 임옥수 110,000 구희관 45,000 양혜선 45,000 반야회3기 700,000 황준순 25,000
김송희 20,000 남분식 25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800,000 한국해양조사협회 400,000
이모디콘 595,000 황재욱 25,000 문성연 30,000 오정주 10,000 박현우 60,000 김동욱 60,000
황효제 60,000 안형준 50,000 정수환 60,000 김성훈 60,000 맹효진 60,000 노형석 60,000
김종윤 60,000 박상준 60,000 최태영 60,000 이지용 10,000 정치원 60,000 이동석 60,000
(주)한국거래소 1,200,000 이동민 60,000 장선우 60,000 김태준 60,000 반야회6기500,000
조방희 10,000 박성자 25,000 신호식 100,000 이혜정 30,000 정인욱 50,000 최은영 50,000
홍사랑 100,000 박웅찬 748,991 최은자 500,000 한명숙 300,000 김명순 30,000 이양우 50,000
정미경50,00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5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 · 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 구로디지탈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